기억의 터 조형물 철거,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.

금일 철거 예정이었던 ‘기억의 터’에 설치된 조형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
정의기억연대(이하 정의연)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퍼포먼스 등을 명분으로
철거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위안부를 기리고 기억하는 공간에 성 가해자의 작품을 절대 존치할 수는 없습니다.

‘기억의 터’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.
위안부의 피해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더 제대로 기억하겠다는 의미입니다.

정의연도 더 이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
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.
내일(9.5.)은 반드시 철거할 것입니다.

서울특별시

대변인